



공인물류관리사회 법인화의 산파역

건강하고 유익한 기관으로 발전시킬 것

이 병 오 / (사)한국공인물류관리사회 부회장

“제난 4월 6일 주무부서인 건교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후 지난 18개월 동안 공인물류관리사회의 임원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건교부 장관님을 비롯한 수송정책과 담당자들에게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의단체였던 공인물류관리사회를 법인화시키는데 산파역을 담당했던 이병오 부회장은 그동안 힘들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아져 어깨가 무겁다는 말로 이야기를 꺼냈다.

공인물류관리사회는 이번 사단법인 허가와 함께 한국 물류산업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각오로 제2의 출발을 힘차게 다짐하고 있다.

먼저 공인된 정부산하 단체로서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유관기관, 단체들, 한국포장협회, 한국물류협회, 교통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국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물류관리사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를 활발히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제4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 오는 8월27일 시행될 예정인데 합격자의 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작년 수준의 합격자가 나온다면 물류관리사는 기존 3,375명을 포함하여 5,200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 추세라면 3~4년 후에는 10,000명이 넘는 거대 조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을 신속히 확대 개편해 거대조직에 맞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라며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본회에 총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6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물류정책 등을 조사, 연구, 입안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본부제를 도입하여 기존 공인물류관리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업종별 특화교육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물류전문가를 배출하고 취업률을 대폭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절실히 요구하는 물류전문인력을 양성 적시에 공급하는 인력뱅크 구상

물류관리사회는 물류산업 현장에서 10년이 상 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재원이 많이 이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기업의 수요와 요구에 맞춰 사업화하는 것도 구상 중이다.

21세기 e-com시대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물류시스템 구축, 물류컨설팅 등 정보화 두뇌집단을 응집시켜 대표적 물류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이다.

여기에 종합적 물류정보가 부족한 국내 현실을 감안해 사이버물류대학 산하에 물류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내외 물류정보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런 물류정보의 축적은 수년내 방대한 양으로 기업과 대학 및 정부에 필요한 고급물류정보를 상시 제공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회장은 공인물류관리사의 수급에도 관심을 갖고 산학연 협력관계를 맺어 기업이 절실히 요구하는 물류전문인력을 양성, 기업에 적시에 공급하는 물류전문 인력뱅크의 큰 그림도 그리고 있다.

이같은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과 인프라 구축의 시간적 제약이 있

는데 중장기 계획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건교부 등의 정부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본회의 목표는 공인물류관리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확고한 위치와 역할에 충실하고 국가와 사회 및 기업 물류발전에 한 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공인물류관리사들과 정부에 물류관련산업 발전의 희망을 심어주고 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매우 건강하고 유익한 기관으로서 태어나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다짐합니다”라며 굳은 신념을 표현했다. [ko]

묵묵히 자신과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숨은 일꾼을 소개해 드립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835-9041